

# 평화와 인권 연극으로 세계를 잇다

26일~11월 7일 광주국제평화연극제

■ 제14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공연일정

평화와 인권에 대한 연극으로 세계를 잇는 '14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26일~11월 7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남다 허물다 웃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주제 공연 6편과 단막극 6편, 심리극 1편과 일본, 그리스, 중국 등 16개 팀이 참여한다.

먼저 26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극단 씨어터세종의 '1919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이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100년에 걸친 민족 역사를 옹기박스 연극으로 엮어냈다.

일본·그리스 등 16개팀 참여 문예회관·빛고을문화관 열려 역사·사회적 약자 목소리 전달

다음 날 같은 시간에는 3편의 단막극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극단 상상공터의 '빠알간 게르니카', 극단 꿈의동지의 '지금 당장', 극단 열아리의 'SLOVE'가 각각 6·25전쟁의 비극, 부자간의 갈등,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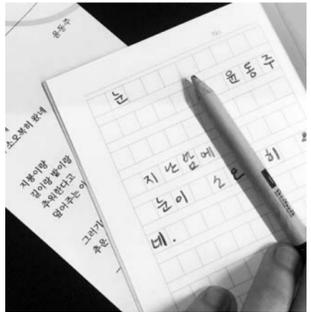
단막극 '호텔 30' (스토리)와 '삶이 느리다, 희망이 강렬하듯!' (연우랑), '돌이아닌 하나' (진달래피네)는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28일 ). (사)공연제작 액터스토리가 독재에 맞선 2·28대구민주운동을 셰익스피어 희곡의 명대사로 재구성한 '청의' (29일 )와 굴곡의 근현대사를 겪은 한 여인의 기억을 되짚은 아트컴퍼니 원의 '숨바꼭질' (30일 ) 등 주제공연이 이어진다.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일본 극단을 초청해 공연을 연다. 1987년 창설한 '다타타단 덴코'는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사카 지역 특색에 맞게 각색한 작품을 통해 일본 전통복 와다이코로 강렬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부산 극단 에저또의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우리네 이야기를 그린다(11월1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러시아와 광주가 함께 만든 연극도 펼쳐진다. 극단 시민은 그레고리 고린의 작품을 김민호와 러시아의 따찌아나가 함께 연출한 '잊어라'를 무대에 올린다. 고대 그리스가 배경인 이 작품은 배우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대사를 주고 받는 독특한 형식을 택했다. 러시아 배우 3명과 노희철, 최용



14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26일~11월7일 열린다. 러시아와 합작한 극단 시민 '잊어라'.



## 책의 해, 'ACC투어-In Library Park' 진행

11월 28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2018년 책의 해를 맞이해 ACC 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파크)의 면모를 살린 특별 프로그램 'ACC투어-In Library Park'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11월 28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오후 5시 30분.

'ACC투어-In Library Park'는 ACC를 이루는 5개원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ACC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 소장된 문학도서의 일부 내용이 담긴 문학자판기를 활용, '필사하기'체험도 곁들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이번 투어에서는 또한 평소 애용되지 않는 공간인 '특별열람실'도 방문, 아시아 문학도서에 대한 색다른 '보기'와 '쓰기'체험도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투어를 위해 특별제작한 필사용 메모지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투어 참가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ACC 홈페이지(https://www.acc.go.kr) ACC 투어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원 20명, 무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플랫폼 ‘광주영화센터’ 구축해야”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기자회견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가 지난 18일 '2018 광주영화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영화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등 광주지역 영화단체가 모인 이 단체는 이날 “최근 개관한 광주독립영화관과 ACC시네마테크, 광주극장 등 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화플랫폼 ‘광주영화센터’ (가칭)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국제영화제 파행을 딛고 광주만의 빛깔을 발산하는 영화축제를 만들기 위한 영화인들의 도전이 시민

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뒤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전병원 동대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원, 이순학 문화콘텐츠그룹 이다 대표, 임진희 충무로영상센터 팀장이 각 사례를 공유하고 광주영화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1일 끝나는 '광주극장 영화제'를 시작으로 광주여성영화제(11월 14-18일), 스웨덴영화제(11월 15-19일), 광주독립영화제(12월 7-9일) 등 광주영화페스티벌이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펼쳐진다. 문의 062-531-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비상무용단 문화거점사업 '빛피골 춤판' 성료



비상무용단 '빛피골 춤판' 공연 모습.

비상무용단이 2개월 여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무용공연 '빛피골 춤판'을 18일 마무리했다.

광주문화재단 문화거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상무용단(예술감독 박종임·송원대 실용예술학과 교수)은 지난 8월부터 광주시 광산구 수안호수공원에서 8차례 걸쳐 2500여 명의 관람객에게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기호 연결된 이들 공연은 '광산(光山)'을 주제로 광산이 낳은 국창 임방울, 시인 박용철 등의 인물과 구한말 의병활동의 전적지인 어등산, 신

도시의 활력을 품고 있는 호수공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했다. 또 '서영무용단',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과 함께 한국무용과 사물놀이,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접목해 협업하기도 했다.

현대무용의 다원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여온 비상무용단의 향후 공연 일정은 무용단 홈페이지(bisang.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CHANNEL

여두밤

사 랑에 빠 지 기 충 분 한 시 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